

1460년 조선 사신 徐居正과 대월 사신 梁如鵠의 교류

변규덕*

〈차 례〉

- 머리말
- 조선과 대월의 문사
- 명으로의 사행
- 창화시 교환
-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1460년 조선 사신 徐居正과 대월 사신 梁如鵠이 명에서 만나 창화시를 주고받으며 교류한 것을 통해 15~18세기 지속된 한월 양국 사신 간 활발한 교류의 기원을 파악하고 15세기 조선-명-대월을 잇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거정과 양여곡은 각각 조선과 대월을 대표하는 문사였다. 서거정은 문으로 흥했던 집안 배경에 더해 집현전, 예문관, 성균관 등에서 관직생활을 했고 특히 약 22년간 대제학으로 있으며 조선의 文柄을 장악했다. 그는 관찬 서적의 편찬에 관여하거나 개인적 저술활동을 하며 조선 초기의 학풍을 주도했다. 양여곡 역시 문한기관인 한림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문사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여러 저술을 남겼는데 특히 시에 재능이 있어 그 명성이 당대를 넘어 후대에까지 전해졌다.

한편 이들은 각각 조선과 대월의 사행단에 포함되어 명에서 조우했다. 양여곡은 레 왕조 내부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새로 즉위한 黎宜民의 책봉을 받아내기 위해, 서거정은 여진 문제로 명과 마찰을 빚고 있던 조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 명으로 오게 되었다. 이들이 명에서 만나 서로 교류한 때는 1460년 8월 초로 추정되며 같은 나이, 양국을 대표하는 문사, 유학 교육을 받은 지식인, 유력한 관료집단의 일원, 명으로의 사행 경험 등 둘 사이의 다양한 공통점이 상호 간 동질감 형성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명에서 이들이 만나 나눈 시는 총 세 편으로, 양여곡의 「차조선국서재상시운」, 서거정의 「차안남사신양곡시운」과 「관성지증양봉사」이다. 앞의 두 편은 동일한 압운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 싱가포르국립대학 비교아시아학 박사수료

酬唱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편의 시 모두 서로에 대한 동질감과 사행을 마치고 떠나는 이별의 아쉬움을 노래하고 있다. 「관성자증양봉사」에서는 서거정과 양여곡이 갖고 있던 수준 높은 문학적 소양이 드러난다. 둘 사이 이러한 고도의 문학행위를 통한 교류는 당시 동아시아 문사들 사이에서 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나아가 조선과 대월이 동아시아 맥락 속에서 어떤 역사적 동질감을 가졌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주제어] 서거정, 양여곡, 조선 사신, 대월 사신, 한월 교류, 창화시

1. 머리말

15~18세기는 韓越 교류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시기이다. 전통 시대 한월 교류의 역사 속에서 이 시기 양국 사신 간 교류는 여타 시기와 달리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그 교류의 결과물로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여러 편의 唱和詩는 양국 사신 간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직접적인 외교 관계가 없었던 양국의 사신이 만나서 교류한 곳은 중국 땅이었다. 전통 시대 한국과 베트남은 공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및 조공책봉체제의 일원이었고, 양국은 빈도에는 차이가 있을 지라도 모두 중국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사신을 파견했다. 특히 14세기 중반 새롭게 세워진 明(1368~1644)이 동아시아 국제질서 확립에 공을 들이면서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의 朝鮮(1392~1910)과 베트남의 레 왕조(Lê 黎, 1428~1788) 역시 왕조 초기부터 사신을 보내며 명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갔다. 중국에서 만난 조선과 大越¹⁾의 사신들은 비록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전통 시대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한문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했고, 창화시 역시 이러한 양국 간 교류의 흐름 속에서 탄

1) 베트남은 10세기 중반 중국의 지배에서 독립한 이후 11세기부터 스스로를 大越이라 칭하였고, 대월이라는 국호는 응우옌 왕조(Nguyễn 阮, 1802~1945) 시기였던 1804년 越南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되었다. 15세기 초의 특정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는 왕조는 바뀌었을지언정 국호는 계속해서 대월이 사용되었다. 한편 중국이나 한국 같은 여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베트남을 安南이라 지칭했는데, 이는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를 받던 중인 679년 唐에 의해 베트남 땅에 설치되었던 安南都護府에서 기원한다. 본고에서는 당시 베트남을 지칭하기 위해 같은 시기 한반도에 존재하였던 '조선'이라는 國號에 대응하는 '대월'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생했다.

한월 양국 사신 간의 창화시 교류는 1460년 서거정(1420~1488)과 양여곡(Lương Như Hộc, 1420~1501)²⁾ 사이에서 처음 시작되어 16세기 李睟光과 馮克寬(Phùng Khắc Khoan)의 교류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이후 18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활발하게 지속되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양국 사신 간의 창화시 중 사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사례는 서거정과 양여곡의 만남을 통해 탄생했다. 둘은 조선과 대월의 사신으로서 1460년 명에서 만나 교류했다. 서거정과 양여곡이 서로 몇 차례나 만나 시문을 주고받았는지는 불분명 하지만, 이들이 명의 通州館³⁾에서 만나 서거정이 시 한 편을 먼저 지어 주자 양여곡이 화답하였고 이어 서거정이 연달아 열 편의 시를 지어 酬應했다고 한다.⁴⁾ 다만 이들이 주고받은 시 중에서 현전하는 것은 세 편으로, 서거정이 양여곡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次安南使梁鶴詩韻」과 붓을 선물하며 지은 「管成子贈梁奉使」, 양여곡이 서거정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次朝鮮國徐宰相詩韻」이다. 서거정과 양여곡의 교류는 그 양상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남아있는 시 역시 창화시 교환의 여타 사례들보다 적지만, 현재까지 전해지는 한월 양국 사신의 창화시 교류 중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즉, 이 교류는 이후 지속될 양국 사신 간의 창화시 교류에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서거정과 양여곡의 교류에 대한 선행연구는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로, 15세기부터 한월 양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동아시아 고전 교육, 중국과의 조공책봉관계, 유교와 한자를 공유하는 동일 문화권 등 동아시아 맥락 속에서 양국 사신의 교류가 시작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⁵⁾ 둘째로, 서거정과 양여곡의 교류를 통해 탄생

2) 양여곡은 『조선왕조실록』과 『사가시집』 등 조선 측의 사료에는 梁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베트남 측의 사료들은 모두 梁如鶴으로 표기했다.

3) 통주관은 그 명칭으로 보아 통주에 있던 사신들의 숙소로 추측된다. 조선 사신들의 경우 북경에 도착하기 전 북경성 남동쪽에 위치한 통주성에 마지막으로 묵었는데, 여기서 북경성으로 들어간 후에는 주로 玉河館에 묵었다. 통주는 현재 베이징시 남동쪽에 위치한 통저우 구이다. 이승수, 「연행로의 地理와 心跡 2, 通州~玉河館」, 『민족문화』 52, 한국고전번역원, 2018, 410쪽.

4) 『성종실록』 권223, 19년 12월 24일(癸丑) 3번째 기사.

한 시들을 한월 양국 사신 간의 창화시 교류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하나의 사례로 설명하거나,⁶⁾ 서거정과 양여곡 사이에서 오고간 시들의 성격, 경향, 의의 등을 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⁷⁾ 다만 이상의 연구들에서 확인되듯이 서거정과 양여곡의 교류는 그것이 이루어진 역사적 맥락이나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의가 구체적으로 점검되기도 15~18세기 활발했던 양국 사신들 간 창화시 교류의 시대적 배경이나 창화시들이 갖는 문학적 가치에 대한 연구 속에서 단발적이고 소략하게만 언급된다. 이것이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월 양국 사신 간 창화시 교류의 ‘최초의 사례’로 연구되기보다는 전체적인 창화시 교류의 흐름 속 ‘하나의 사례’로만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거정과 양여곡의 교류를 여러 한월 사신 간 창화시 교류 중 하나의 사례로만 보기보다 이것이 사료에 남아 있는 최초의 사례로서 어떤 가치를 갖는지, 서거정과 양여곡으로 대표되는 당시 조선과 대월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만남이 후대의 교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에 비해 베트남 측 사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만남과는 별개로 교류의 당사자 중 한쪽인 양여곡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알아보아야 한다.

이에 본고는 서거정과 양여곡이라는 두 인물과 1460년 명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대한 시대적 맥락과 일련의 상황을 파악할 것이다. 비록 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는 세 편의 창화시 밖에 없지만 본고에서는 전통 시대 한국과 베트남의 사료를 통해 동갑내기였던 서거정과 양여곡이 교류한 배경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5) 최병욱, 「한·월 교류사에서 보이는 문사의 전통」, 『한국과 베트남 사신, 북경에서 만나다』(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명출판, 2013; 조흥국,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사』, 소나무, 2009; 윤대영, 「베트남 레(Lê) 왕조(黎朝)의 知的 動向과 性格 - 實學의 變遷 및 레 꾸이 돈(Lê Quý Đôn, 黎貴惇, 1726-1784)의 학문관과 관련하여」, 『동양사학연구』 168, 동양사학회, 2024.

6) 전카마인, 「중세시기 한월사신들 간의 창화시 조사와 번역 · 연구 검토」, 『한국과 베트남 사신, 북경에서 만나다』(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명출판, 2013.

7) 박희병, 「조선 후기 지식인과 베트남」, 『한국문화』 4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최귀묵, 「한월 창화시 연구의 경과와 방향 점검」, 『한국과 베트남 사신, 북경에서 만나다』(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명출판, 2013; 김풍기, 「『북정록』에 나타난 서거정의 사행 경험과 훈구문학의 고고학적 탐구」, 『국학연구총론』 24, 태민국학연구원, 2019.

1장에서는 서거정과 양여곡이 각각 조선과 대월에서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규명될 것이다. 양자 공히 당시 조선과 대월을 대표하는 문사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2장에서는 두 사람이 명에 사신으로 파견된 배경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합격 후 관직생활을 했던 그들은 일생 동안 두 차례 명으로 가는 사행단에 포함되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북경에서 만난 두 사람의 시문 교류와 서거정과 양여곡이 주고받은 세 편의 창화시가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가 3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2. 조선과 대월의 문사

1420년생 동갑내기인 서거정과 양여곡은 각각 15세기 조선과 대월에서 당대를 대표하는 문인이자 국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 명망 높은 관료였다. 특히 문사로서의 활발한 활동과 경험은 그들이 명에서 만난 이후 서로 더욱 강하게 교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서거정은 본관이 대구로 아버지는 牧使를 지낸 徐彌性, 어머니는 權近(1352~1409)의 딸이다. 서거정의 외조부인 권근은 고려 말의 대학자인 李穡의 문하에서 鄭夢周, 鄭道傳 등과 동문수학 하며 문장가로서 명성을 떨쳤고 조선이 건국된 이후 大提學을 지냈다. 이 때문인지 서거정 집안에는 文으로 흥한 사람이 많았는데 특히 문과 시험의 주관자로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대제학을 권근과 그 자손들이 약 80년 동안 독점하며 조선 초기의 학풍과 사조를 관장했다.⁸⁾ 서거정은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였던 李季甸(1404~1459)에게서도 수학했는데, 그 역시 이색의 손자이자 권근의 외손으로 대제학을 역임했다.⁹⁾ 이러한 집안 배경은 서거정이 당시 조선을 대표하는 문사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서거정과는 달리 양여곡

8) 김성우, 「15세기 중·후반 勳舊官僚 徐居正의 관직생활과 그에 대한 평가」, 『대구사학』 83, 대구사학회, 2006, 71쪽.

9) 신병주, 「서거정의 행적과 역사서 편찬 -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을 중심으로」, 『승실사학』 50, 승실사학회, 2023, 393쪽.

은 그 출생 배경과 관련하여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가 하이즈영(Hải Dương) 長津縣(Trường Tân) 紅蓼社(Hồng Liễu) 출신이라는 것이 전부이다.¹⁰⁾ 다만 하이즈영이 15세기부터 수많은 유학자들을 배출해낸 베트남 북부 紅河 델타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그의 출신지와 훗날 그의 이력 사이 연관을 알 수 있다.

서거정과 양여곡은 비슷한 시기에 과거에 합격했다. 양여곡은 레 왕조 太宗(Lê Thái Tông, 1433~1442) 때인 1442년 3월 시행된 임술년 회시에서 阮直(Nguyễn Trực), 阮如堵(Nguyễn Như Đổ)에 이어 3등인 탐화로 진사시에 급제했다. 이해에 시행된 과거에서 이들 셋과 더불어 陳文徽(Trần Văn Huy) 등 7인이 진사로 합격하였고 훗날 『大越史記全書』를 편찬한 吳士連(Ngô Sĩ Liên) 등 23인이 동진사로 합격했다.¹¹⁾ 또한 이때 처음 과거합격자들의 이름을 새긴 進士題名碑가 시작되어 1442~1779년의 진사제명비 82개가 하노이 文廟(Văn Miếu)에 현재까지 남아있다. 추후 언급되겠지만 양여곡을 포함한 1442년의 과거 합격자 33명은 이후 레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핵심 정치집단으로 성장하게 된다. 한편 서거정의 과거 합격에 관한 내용은 『성종실록』의 「달성군서거정졸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서거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여섯 살에 글을 읽고 글귀를 지어 사람들에게 신동이라고 불렸고 1438년 생원, 진사 양시에서 합격, 이후 1444년에 문과에서 3등으로 급제했다.¹²⁾

과거에 합격한 두 사람은 주로 文翰기관에서 봉직하며 조정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서거정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 있던 집현전에서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주로 예문관, 성균관 등에서 있었다. 특히 그는 1467년 자형 崔恒(1409~1474)의 뒤를 이어 대제학이 된 이래 약 22년이라는 유례없이 긴 기간 동안 조선의 文柄을 장악하였고 知成均館事로서 유생들을 교육, 감독하는 직임을 오래 수행하였으며, 성종(1469~1494) 때에는 국왕의 경연관

10) Lại Nguyên Ân, *Từ Điển Văn Học Việt Nam - Từ nguồn gốc đến hết thế kỷ XIX* (베트남문학사전 - 기원에서부터 19세기가 끝날 때까지), Nhà Xuất Bản Văn Học, 2018, p. 303.

11) 『大越史記全書』(陳荊和 編校),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85, 606쪽.

12) 『성종실록』 권223, 성종 19년 12월 24일(癸丑) 3번째 기사.

이자 왕세자의 사부로 양대 군주의 스승이 되는 영예를 누렸다.¹³⁾ 양여곡 역시 과거에 합격한 이후 安撫副使, 翰林院直學士, 都御史, 禮部侍郎, 中書令兼秘書監學生 등을 지내며 활발하게 관직생활을 했다.¹⁴⁾ 양여곡이 직학사로 있었던 한림원은 ‘文翰之林’을 줄여 이름 붙인 기관으로, 중국에서 유래하여 리 왕조(Lý季, 1009~1225) 때 처음 설치되었다.¹⁵⁾ 한림원이 중국, 한국, 베트남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중심 학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레 왕조의 건국공신이자 대표적인 유학자로 잘 알려진 응우옌짜이(Nguyễn Trãi阮薦, 1380~1442)¹⁶⁾ 역시 한림원에서 관직생활을 했던 만큼 한림원은 여느 동아시아 국가에서와 같이 베트남 역대 왕조의 대표적인 문헌기관이었다.

아울러 서거정과 양여곡은 관리인 동시에 문사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했다. 양여곡은 『精選諸家律詩(Tinh Tuyền Chư Gia Luật Thi)』, 『古今制辭集(Cổ Kim Chế Từ Tập)』 같은 책들을 편찬했다. 『정선제가을시』는 양여곡과 그의 제자 楊德顏(Dương Đức Nhan)이 쩌(Trần 陳), 호(Hồ 胡), 레 왕조의 율시 중 뛰어난 것을 뽑아 批點을 찍어 편집한 것으로 ‘陳朝’, ‘黎朝’, ‘附錄’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 왕조의 것은 쩌 왕조의 것에 포함되어 있다.¹⁷⁾ 『고금제사집』은 옛날부터 레 왕조까지의 제사를 모아놓은 책으로, 제사는 임금이 신하에게 덕을 닦도록 내리는 訓辭를 의미한다.¹⁸⁾ 이것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더해 양여곡은 시에 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1463년 레 왕조 聖宗(Lê Thánh Tông, 1460~1497)은 여러 신하들에게 勅諭를 내렸는데, 예부좌시랑이던 양여곡에게는 시를 지을 때 國語의 詩體를 배우지 못한 인물들을 비판하면서 “내가 보기에 너의 『洪州國語詩集』이 律을 잃은

13) 김성우, 앞의 논문, 84~87쪽.

14) Lại Nguyên Ân, op. cit., p. 303.

15) Đỗ Văn Ninh, *Từ Điển Chức Quan Việt Nam* (베트남관직사전), Nhà Xuất Bản Thông Tấn, 2018, pp. 243~244.

16) 이 시기 베트남의 다른 인명과 달리 응우옌짜이의 이름만 베트남어 발음으로 표기한 이유는 한국 내에서도 ‘완치’라는 한자 독음보다 응우옌짜이라는 베트남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17) 『精選諸家律詩』, Viện Nghiên Cứu Hán Nôm, A. 574.

18) Lại Nguyên Ân, op. cit., p. 303.

것이 또한 많은데, 너는 알지 못한다 생각하여 내가 그것을 편히 말한다.”라고 지적했다.¹⁹⁾ 양여곡의 책인 『홍주국어시집(Hồng Châu Quốc Ngữ Thi Tập)』이 베트남 고유의 문자체계인 찌놈(chữ Nôm, 字喃)으로 쓰인 시들을 모아놓은 시집이었기에 여기서 성종이 지적한 ‘국어의 시체’는 찌놈의 시체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양여곡이 이미 『홍주국어시집』 같은 시집을 편찬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 그에 대한 성종의 비판이 시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시체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성종은 그 자신이 레 왕조의 황제였던 동시에 뛰어난 유학자였고, 시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다.²⁰⁾ 그런 그가 여러 신하들에 대한 황제의 칙유에서 양여곡이 쓴 시의 체제를 지적한 것은 양여곡이 당시 문사들 중 그만큼 시에 재능이 있는 인물 이었고, 성종 역시 시에 대한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것은 후대에 전해진 시에 대한 양여곡의 명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8세기 베트남을 대표하는 학자였던 黎貴惇(Lê Quý Đôn, 1726~1784)이 翰林承旨로 있으면서 리 왕조부터 레 왕조에 이르기까지의 시를 모아 편찬한 『全越詩錄(Toàn Việt Thi Lục)』 중 ‘國朝’ 편에 양여곡의 시 여섯 수가 포함되어 있다.²¹⁾

현전하는 자료로만 판단한다면 서거정은 양여곡 보다 훨씬 더 왕성하게 문사로서 활동했다. 세조(1455~1468) 즉위 당시 서거정은 국왕의 최측근으로서 辭命의 대부분을 찬술하였고, 예종(1468~1469), 성종(1469~1494)까지 3대에 걸쳐 수많은 관찬 서적의 편찬에 관여하거나 다양한 저술활동을 하며 조선 초기 학풍을 주도했다.²²⁾ 그는 유교경전뿐 아니라 역사, 지리, 병학, 역학, 율학에 이르는 포괄적이고도 실용적인 학문을 두루 익혔고, 국가

19) 『大越史記全書』, pp. 648~649.

20) 성종은 1495년 시에 능한 조정 신하 28명을 뽑아 驛壇 28宿라 하였고 스스로를 驛壇元帥라고 칭하면서 驛壇會라는 詩會를 주재했다. 유인선, 앞의 책, 196쪽.

21) 『전월시록』 중 양여곡의 시 여섯 수는 ‘장극상묘(張奭相廟)’, ‘인일수각만서(人日睡覺漫書)’, ‘소주회고(韶州懷古)’, ‘승로반(承露盤)’, ‘남확(南確)’, ‘숙회기항구(宿回岐港口)’이다. 『全越詩錄』, Việt Nghiên Cứu Hán Nôm, A. 393.

22) 신병주, 앞의 논문, 394~396쪽; 노요한, 「세조-성종연간 서거정의 저술과 편찬 활동」, 『진단학보』 136, 진단학회, 2021, 223~224쪽.

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아 『國朝五禮儀』 주해 작업, 관제 개편 사업, 병서 교정 작업, 사서오경의 구결 정리와 馬醫書 편찬, 『經國大典』, 『三國史節要』, 『東國輿地勝覽』, 『東文選』, 『東國通鑑』, 『五行摠括』 편찬 등 다양한 국가적 편찬 사업에서 핵심을 맡았다.²³⁾ 또한 개인적으로도 『四佳集』, 『筆苑雜記』, 『東人詩話』, 『太平閑話滑稽傳』 등 다양한 저작을 남겼다. 특히 문장가로서 서거정의 명성은 조선을 넘어 중국에까지 알려졌고 이에 그는 조선으로 온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총괄하거나 중국으로 가는 조선 사행단에 포함되어 중국 문인들과의 교류를 담당했다.²⁴⁾ 서거정은 그야말로 당대 제일의 문장가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였고 죽어서는 ‘文忠’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3. 명으로의 사행

자신들의 조국에서 뛰어난 문사로 이름을 떨쳤던 서거정과 양여곡 두 사람은 1460년을 전후로 한 시기 명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조우했다. 사실 이 시기 명으로의 사행은 두 사람 모두에게 처음이 아니었다. 서거정은 1452년 명에 謝恩使로 파견된 수양대군의 종사관으로서 명으로 향하다가 압록강을 건넌 직후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듣고 조선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비록 북경에 도착하지는 못하였지만 서거정은 사행단에 포함되어 압록강까지 건넜다. 양여곡도 과거에 합격한 다음 해인 1443년에 명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당시 御前學生局長으로 있었는데, 레 태종 사후 이루어진 명 황제의 치제에 감사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御史中丞 何甫(Hà Pǔ), 翰林院知制誥 완여도와 함께 명에 다녀왔다.²⁵⁾ 완여도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양여곡과 함께 1442년 회시에 급제한 인물이기도 했다. 이처럼 한 차

23) 김성우, 앞의 논문, 88~89쪽.

24) 위의 논문, 77쪽.

25) 『大越史記全書』, p. 609.

레 명으로 가는 사행단에 포함되었던 서거정과 양여곡은 1460년 즈음 다시 금 명으로 향하게 되었다.

양여곡이 명으로 과전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5세기 초 베트남의 상황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1407년부터 1427년까지 약 20년간 명의 지배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은 내부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는데, 명에 의해 베트남 사회에 신유학이 “강요(imposed)”되었다.²⁶⁾ 이러한 정책에는 자신들의 “문명화 임무(civilizing mission)”가 베트남에 새로운 관료제와 신유학적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당시 중국인들의 믿음이 반영되었고, 이는 실제로 베트남 내부에서 극적인 변화의 출현으로 이어졌다.²⁷⁾ 명으로부터 『性理大全』, 『五經大全』, 『四書大全』 등과 같은 신유학 관련 서적들이 유입되었고, 특히 朱熹의 주석서들이 베트남에서 수용되어 전파되어 나갔다.²⁸⁾ 또한 베트남에 유학 교육을 위한 많은 학교들이 설립되었고 그곳에서 교육 받은 베트남인들이 貢生으로 선발되어 명의 국가감으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²⁹⁾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학 교육을 받은 지식인 집단은 15세기 말까지 이어진 베트남의 유교화를 견인하는 새로운 주체가 되었다.

베트남은 1427년 레 왕조가 세워지면서 다시 독립을 맞이했다. 하지만 새로운 왕조를 건국한 太祖(Thái Tổ, 1428~1433)가 죽은 이후 레 왕조에서는 내부적으로 혼란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었다. 무장투쟁이 중심이 되었던 레 왕조 건국 과정의 특성상 태조와 함께 명에 저항하며 건국에 일조한 타인호아(Thanh Hóa 淸化) 출신의 개국공신 무인 집단의 영향력이 왕조 초기부터 강력했다. 이들은 왕조 건국 이후 유학 교육을 받은 흥하 델타 출신의 문신들과 대립하였는데 특히 태조의 죽음 이후 그 갈등이 점차 증폭되었다. 태

26) Liam C. Kelley, “Confucianism in Vietnam: A State of the Field Essay”,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1, no. 1-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p. 331.

27) John K. Whitmore, *Vietnam, Hồ Quý Ly, and the Ming (1371-1421)*, Yale Southeast Asia Studies, 1985, pp. 116-131.

28) 윤대영, 앞의 논문, 587-588쪽.

29)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2013, 173쪽.

조사후 태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에 치세 초반에는 무인 집단이 과두정치
를 통해 권력을 독점하였지만 태종은 친정을 시작한 이후 점차 델타 출신
의 문신들을 등용하며 무인들을 견제했다. 전술했듯이 양여곡을 비롯하여
유학 교육을 받은 젊은 지식인들이 대거 과거에 급제한 것도 이 시기였다.
그러던 중 자신들의 흔들리는 입지에 위기감을 느낀 무인들이 태종을 살해
하고 문신들을 조정에서 몰아내 다시 권력을 독점했다.³⁰⁾ 태종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이자 생후 14개월에 즉위한 仁宗(Nhân Tông, 1442~1459) 역시
자신의 이복형인 黎宜民(Lê Nghi Dân)의 찬탈로 살해되며 계승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었다.

새로 황제가 된 여의민은 1459년 명에 두 차례 사신을 보냈고 양여곡은 여
의민의 책봉을 받아내기 위해 파견되었던 두 번째 사행단에 陳封(Trần
Phong), 陳伯齡(Trần Bá Linh) 등과 함께 포함되었다.³¹⁾ 양여곡의 명 사행
은 그가 속해 있던 특정 세대의 문신 집단의 특징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
다. 태종이 타인호아 출신의 무인 집단에 의해 살해당하고 인종을 황제로 세
우면서 조정의 권력 역시 그들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나 여의민이 반란을 일
으켜 권력을 잡으면서 홍하 델타 출신들의 관료들이 다수 등용되었고 중앙
과 지방의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六科에도 델타 출신의 젊은 문인들
이 대거 임명되었다.³²⁾ 이처럼 델타 출신의 문신들이 약진하는 상황 속에서
특히 1442년과 1448년의 과거 합격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명의 베트남
지배 기간 동안 이식된 명의 행정적, 의례적 형식을 받아들인 지식인들 중
그 첫 번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1440년대 말부터 1460년대 말까지
명으로의 사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 시기 명을 다녀온 사신 중

30) 사료에 따르면 1442년 궁 밖으로 순행을 나갔던 태종은 레 왕조의 개국공신이자 대학자였던 응우
옌짜이의 집에 들렀는데 그곳을 떠난 뒤 박닌(Bắc Ninh 北寧)에 이르러 급사했다. 이를 빌미로
무인 집단은 태조의 최측근에서 왕조를 세우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 중 한 명이자 델타 출신
문신 집단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응우옌짜이를 희생양 삼아 그를 살해하고 권력을 차지했다. 레
왕조 초기 무인 집단의 과두정치 확립과 무인과 문신들 사이의 갈등, 응우옌짜이의 죽음에 대해서
는 John K. Whitmore, "The Development of Le Government in Fifteenth Century Vietnam",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1968, pp. 1~38을 참조.

31) 『大越史記全書』, p. 635.

32) 유인선, 앞의 책, 187쪽.

40%가 이 범주에 속해 있는 지식인들이었고 그들 중의 대다수가 1442년과 1448년의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었다.³³⁾ 양여곡 역시 1442년 과거에 합격한 인물이었다고 그와 함께 사행길에 오른 진백령도 1442년 과거의 제2갑진 사시에 합격한 인물이다.³⁴⁾ 이에 더해 양여곡이 약 15년 전 명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는 사실도 그가 사행단에 합류한 또 하나의 이유였다. 1442년 과거에서 양여곡보다 높은 2등으로 합격하였고 1443년에는 양여곡과 함께 명에 간 적이 있는 완여도 역시 여의민이 반란을 일으킨 직후인 1459년에 세공을 바치기 위해 黎景徽(Lê Cảnh Huy), 黃淸(Hoàng Thanh), 阮堯咨(Nguyễn Nghiêu Tư) 등과 함께 명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³⁵⁾

베트남인들에게 있어 중국으로의 사행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명은 조선보다 베트남에서 가는 길이 훨씬 더 멀고도 험했고,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최대한 일정을 단축할 경우 7~9개월이 소요되었다.³⁶⁾ 양여곡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여의민에 대한 명 황제의 책봉을 청하기 위해 1459년 10월 20일 탕롱(Thăng Long 昇龍, 현재의 하노이)을 출발한 양여곡은 베트남을 떠난 지 약 10개월 만인 1460년 8월 16일 명에 방물을 바쳤고 명에서는 그들에게 綵幣, 紵絲, 襲衣 등을 하사했다.³⁷⁾ 아울러 8월 19일에 명은 여의민을 安南國王에 책봉하기 위해 通政使司左參議 尹旻을 正使로, 禮科給事中 王豫를 副使로 하여 베트남으로 보냈다.³⁸⁾ 그러나 명 사신들은 국경을 넘기 전 여의민이 이미 살해당했고 黎灝(Lê Hào, 레 성종)가 그 자리를 이어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갔다.³⁹⁾ 베트남에서 권력에서 밀려난 타인호아 출신의 개국공신들이 여의민을 죽이고 태종의 넷째 아들이던 여호를 새로운 황제로 세웠기 때문이다.

33) John K. Whitmore, "Northern Relations for Đại Việt: China Policy in the Age of Lê Thánh Tông (r.1460-1497)", *China's Encounters on the South and Southwest* (ed. James A. Anderson and John K. Whitmore), Brill, 2015, p. 243.

34) 『欽定越史通鑑綱目』, 臺灣國立中央圖書館, 1969, 18:35.

35) 『大越史記全書』, p. 635.

36) 최귀목, 「越南의 중국 使行文獻 자료 개관 및 연구 동향 점검」, 『대동한문학』 34, 2011, 132-137쪽.

37) 『明英宗實錄』 卷318, 天順 4年 8月 16日 2번째 기사.

38) 위의 사료, 天順 4年 8月 19日 1번째 기사.

39) 『明史』 卷321, 「安南列傳」, p. 8327.

한편 비슷한 시기였던 1460년 6월 19일 조선 세조는 이조참판 金修를 사은사로, 중추원부사 서거정을 부사로 하는 사행단을 명으로 파견했다.⁴⁰⁾ 당시 조선은 여진 문제로 인해 명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북방의 여진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었고, 특히 세조는 즉위 초부터 여진 종족들 간의 반목과 투쟁을 중재하거나 여러 여진 추장들의 내조를 적극 권유하며 북방의 안정과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도모했다.⁴¹⁾ 당시 毛憐衛 추장 중에 浪孝兒罕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모련위에서 가장 큰 세력을 이끌고 있었고 명의 관직인 모련위도지휘사와 조선의 관직인 정헌대부 지증추원사를 이중으로 수여받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1459년 세조가 建州三衛 추장들을 후대하자 낭발아한은 이에 불만을 가져 조선이 여진을 정벌하려 한 다며 다른 여진 추장들을 거짓으로 선동했다.⁴²⁾ 여진 추장들에 대한 조선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들이 통제범위를 벗어날 경우 제거하는 것이었기에 이러한 방침에 따라 세조는 조선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던 낭발아한 부자와 그 일족들을 참수했다.⁴³⁾ 그러나 명의 관직을 받은 낭발아한을 명에 奏聞하지 않고 죽인 것은 곧 조선과 명 사이의 외교적 마찰을 가져왔고, 명은 낭발아한을 처벌한 것이 “王國의 法으로 隣境의 사람에게 죄를 준 것”이라며 조선을 질책했다.⁴⁴⁾ 이에 세조는 명으로 여러 차례 사은사를 보내 낭발아한 문제에 대해 해명해야만 했다. 서거정이 사은부사로 갔던 사행단 역시 같은 이유로 명에 파견되어 이들이 가져간 奏文에는 낭발아한의 죄목, 조선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낭발아한은 인경의 사람이 아닌 조선의

40) 『세조실록』 권20, 세조 6년 6월 19일(甲子) 1번째 기사.

41) 세조가 여진의 내조를 적극 권유했던 것은 어진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고 즉위한 그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기도 했다. 그는 대외관계에서 천명을 강조하며 여진과 왜인들의 내조가 천명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고, 실제로도 여진의 내조 횟수는 다른 시대와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많았다. 한성주, 「조선 세조대 '女眞 和解事'에 대한 연구 - 申叔舟의 파견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 동북아역사재단, 2012, 270~271쪽.

42) 한성주, 「조선 세조대 毛憐衛 征伐과 여진인의 從軍에 대하여」, 『강원사학』 22·23, 강원사학회, 2008, 94~96쪽.

43) 이규철, 「세조대 모련위 정벌의 의미와 대명인식」, 『한국사연구』 158, 한국사연구회, 2012, 134~137쪽.

44) 『明英宗實錄』 卷318, 天順 4年 4月 28日(甲戌) 1번째 기사.

백성들과 혼인한 編氓으로 봐야한다는 주장 등이 상세히 적혀있다.⁴⁵⁾

이러한 외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거정이 사은부사로서 명에 가게 된 것은 조선 조정 내에서 차지하고 있던 그의 위치 때문이었다. 서거정은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문장가임과 동시에 세조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고 계유정난 당시 세조를 도운 공신들 다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세조가 대군 시절 명에 사은사로 떠날 때 종사관으로서 동행하였고 세조 즉위의 공신인 韓明澮, 申叔舟와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으며 權擥과는 내외종간이었다. 그렇기에 서거정은 세조 즉위 후 공조참의, 이조참의, 예조참판, 대사헌, 형조판서, 성균관지사, 예문관대제학 등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고, 전술했듯이 그 문장 때문에 세조의 사명 대부분을 전담하여 명과의 관계에도 밝았다. 세조 역시 이런 서거정을 굉장히 총애하였고 그의 시를 몹시 사랑해 말년에 공신들에게 주연을 자주 베풀며 서거정의 시를 듣고는 그에게 직접 술을 따라 바치라 명하거나 당부의 말을 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⁴⁶⁾ 이처럼 당시 명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던 조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한 사은부사의 직임에 그 문장이 뛰어나고 국왕이 신뢰하는 신하이자 세조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관료 중 하나였던 서거정만 한 적임자는 없었다.

서거정 일행은 출발한 지 약 2개월 후인 1460년 8월 11일 명에 방물을 바쳤다.⁴⁷⁾ 조선과 대월의 사행단이 각각 8월 11일과 8월 16일에 북경에서 방물을 바쳤고, 앞서 밝혔듯이 서거정과 양여곡이 교류했던 통주관은 조선 사신이 북경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무르던 곳이었기에 두 사람의 만남은 조선 사행단이 북경에서 방물을 바친 8월 11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서거정과 양여곡은 여러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동갑내기였던 두 사람은 각각 조선과 대월을 대표하는 문사이자 고도의 유학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고 조정을 이끌어가는 유력한 관료집단에 속해있었으며, 명으로

45) 『세조실록』 권20, 세조 6년 6월 19일(甲子) 1번째 기사.

46) 김성우, 앞의 논문, 76쪽; 『세조실록』 권41, 세조 13년 1월 24일(辛卯) 1번째 기사.

47) 『明英宗實錄』 卷318, 天順 4年 8月 11日(甲寅) 1번째 기사.

의 사행 경험도 있어 둘 다 1460년 사행단에 부사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통점은 상호 간의 동질감 형성에 기여하였고 아래에서 살펴볼 창화시 교환도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4. 창화시 교환

서거정과 양여곡이 정확히 언제 만나서 시문을 교환하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明實錄』에 등장한 조선과 대월 사행단에 관한 기록과 통주관의 위치로 보아 1460년 8월 초로 추측된다. 다만 조선의 사은사 김수와 부사 서거정이 10월 7일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기록⁴⁸⁾과 북경에서 조선까지 돌아오는 길이 약 한 달 반 정도 걸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교류한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을 것이다. 서거정과 달리 양여곡의 경우는 베트남 측 사료에 그가 언제 고국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⁴⁹⁾ 아울러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최초 열 편 이상의 창화시를 교환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서거정이 쓴 시 두 편과 양여곡이 쓴 시 한 편이 전부이다. 이 세 편의 시들은 한월 사신 간의 창화시 교류에 있어 사료에서 발견되는 가장 이른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

서거정과 양여곡이 주고받은 시 세 편은 모두 서거정이 명으로 사행을 다녀온 후 지은 책인 『북정록(北征錄)』에 실려 있는데, 이 『북정록』은 서거정의 『사가시집』 제7권에 남아 있다. 세 편의 시를 살펴보면, 첫째는 『사가시집』 제7권 '附'의 「차조선국서재상시운」이다. 서거정의 줄기에 따르면 서거정이 시 한 편을 먼저 지어 주자 양여곡이 화답하였고, 서거정이 연달아 열

48) 1460년 10월 7일 사은사 김수와 사은부사 서거정이 명에서 돌아오니 세조가 비가 오는 중에도 말을 멈추고 그들에게 술을 내려 주었다고 한다. 『세조실록』 권22, 세조 6년 10월 7일(己酉) 2번째 기사.

49) 리치로 후지와라(Riichiro Fujiwara)는 15~16세기 대월에서 명으로 보낸 사신의 목록을 정리했다. 그는 베트남 사신의 명 체류기간 역시 표시하였는데 1459년 양여곡 일행이 얼마나 명에 체류하였는지는 생략되어 있다. 藤原利一郎, 「黎朝前期の明との関係」, 『ベトナム中国関係史』(山本達郎 編)山川出版社, 1975, p. 322.

편을 지어 수응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시는 서거정이 처음 양여곡에게 지어 주었다는 시에 대해 양여곡이 차운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여곡의 「차조선 국서재상시운」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국 서 재상의 시에 차하다

次朝鮮國徐宰相詩韻

만리 먼길에 왕명 받든 사신이
 와서 상국의 문물을 관찰하였네
 의관은 한 제도를 같이하거니와
 평수처럼 만나니 각각 타향일세
 동해 바다엔 파도가 광활하고
 남쪽 하늘엔 세월이 더딜 텐데
 언제나 거듭 다시 서로 만나서
 눈이 미치는 데까지 길이 서로 바라볼꼬

萬里皇華使
 來觀上國光
 衣冠同一制
 萍水各他鄉
 東海波濤闊
 南天日月長
 何時重再會
 極目永相望

안남국 부사 양곡

安南國副使梁鶴⁵⁰⁾

둘째는 『사가시집』 제7권 ‘詩類’에 실린 서거정의 「차안남사신양곡시운」이다. 이 시의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남사신 양곡의 시에 차하다

次安南使臣梁鶴詩韻

만국이 육로 해로 험한 길 넘어온 이날
 동시에 천자의 밝은 빛으로 나아오도다
 한 형제로서 사해가 균일하니
 담소하는 이곳이 곧 나의 고향일세

萬國梯航日
 同時近耿光
 弟兄均四海
 談笑即吾鄉

50) 「차조선국서재상시운」, 『사가시집』 제7권 ‘부’.

새로 알게 된 즐거움을 너무도 기뻐했는데	已喜新知樂
이별의 슬픔 길어짐을 어이 견디랴	那堪別恨長
훗날 남과 북에서 서로를 그리워할 제	他年南北思
구름과 물만 참으로 아득하겠지	雲水正茫茫 ⁵¹⁾

양여곡의 「차조선국서재상시운」과 서거정의 「차안남사신양곡시운」은 명에서 교류했던 두 문사가 모두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그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한 것이다. 두 편의 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五言律詩로, 각각의 구가 총 다섯 자로 이루어져 있고 총 여덟 구가 전체적으로 시 한 수를 구성하고 있다. 오언을시를 읽을 때는 ‘OO/OOO’의 형식으로 앞의 두 글자와 뒤의 세 글자를 구별하여 읽어야 하고, 두 편의 시 모두 짝수 번째 구의 마지막 글자인 ‘光’, ‘鄉’, ‘長’, ‘望/茫’이 押韻을 이루어 시의 운율을 살렸다. 또한 양여곡과 서거정의 시에서 동일한 압운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편의 시가 酬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양여곡이 서거정의 시에 차운하여 쓴 시가 베트남 측 사료에는 남아 있지 않고 서거정의 『사가시집』에 실려 있다는 것이다. 조선 측 사료를 통해서 15세기 베트남 지식인의 시에 대한 역사적, 문학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차조선국서재상시운」과 「차안남사신양곡시운」의 내용을 읽어보면 서거정과 양여곡이 서로에게 느끼던 동질감을 확인할 수 있다. 양여곡의 「차조선국서재상시운」에서 ‘의관은 한 제도를 같이 하거니와’라는 구절은 당시 조선과 대월이 비슷한 제도를 공유하고 있던 사실을 보여준다. 서거정은 「차안남사신양곡시운」에서 ‘동시에 천자의 밝은 빛으로 나아오도다’라는 구절을 통해 당시 조선과 대월이 모두 명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책봉체제의 일원이자 15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성원이었음을 드러냈다. 이 시기 외국 사신들이 명 황제 앞에 나아가면 조선은 제일 상석, 대월은 다음 차석에 앉

51) 「차안남사신양곡시운」, 『사가시집』 제7권 ‘시류’;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월 사신 창화시문』, 글로벌컨텐츠, 2013, 34~35쪽.

있고 『명사』 ‘외국열전’의 구성 역시 조선이 가장 처음에, 그 다음 대월(안남)이 등장한다. 또한 ‘한 형제로서 사해가 균일하니 담소하는 이곳이 끝나의 고향일세’라는 구절은 조선과 대월 사이의 형제애를 강조하고 양여곡과의 만남이 고향처럼 편안하다고 말하며 양국이 공유하고 있던 동질감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두 편의 시 모두 서로 이별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역시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차조선국서재상시운」에서 볼 수 있는 ‘萬里’, ‘極目’, 「차안남사신양곡시운」에 나타나는 ‘梯航’, ‘南北’, ‘茫茫’ 등은 조선과 대월이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전통 시대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소식 역시 중국을 왕래한 사신들을 통해 접하고 있었지만, 양국은 직접적인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과 대월의 사신이 명에서 만났다가 사신의 임무를 마치고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이 차운한 두 편의 시에서 서로에 대한 동질감과 더불어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세 번째 시는 서거정이 양여곡에게 지어준 두 편의 연작시인 「관성자증양봉사」로 역시 『사가시집』 제7권 ‘시류’에 실려 있다.

<관성자를 양 봉사에게 주다

管城子贈梁奉使>

중서가 늙어 털이 닳아 글씨 쓰긴 어려우나

中書老去禿難書

붓을 휘두를 땀 때로 자태가 여유로워라

揮灑時時態有餘

만고에 널리 전한 모영전 있으니

萬古流傳毛穎傳

문장을 누가 다시 경거에 비긴단 말인가

文章誰復擬瓊瑤

가슴속에 오거서가 쟁여져 있어

胸中磊落五車書

주옥 같은 문장을 수다하게 뱉어내어라

珠玉紛紛咳唾餘

본래부터 시를 주는 건 호대와도 같거니 自是投章同縞帶
 어찌 일찍이 경거로 보답하길 바랐으리요 何曾報答望瓊瑠

여기서 관성자는 당나라 시인 韓愈의 「毛穎傳」에서 붓을 의인화한 데서 기원하는데, 이 연작시는 서거정이 양여곡에게 붓을 선물로 주면서 지은 것이다. 이 시에서는 서거정이 양여곡을 상당한 수준을 갖춘 문사로 대우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첫 번째 수에서 한유의 「모영전」이 언급된 것이나, 두 번째 수에서 보이는 ‘五車書’, ‘咳唾’, ‘縞帶’, ‘瓊瑠’ 등의 단어들은 모두 한유와 杜甫의 시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다면 제대로 창작하거나 감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⁵²⁾

이처럼 조선과 대월의 사신이 서로 시문을 교류하는 것은 단순한 교류를 뛰어넘는 문학행위였고 그 기저에는 서로에 대한 동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양국의 지식인들은 모두 동아시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한자를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말은 통하지 않더라도 필담을 나누는 것이 가능했고, 단순한 필담을 넘어서 서로 시문을 지어 주고받으며 교류했다. 여기서 시를 창작하는 활동이 동아시아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는 동아시아 문사들에게 있어 극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그들은 ‘시언지(詩言志)’, 즉 시가 “사람의 [목적이 뚜렷한]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한다(poetry articulated the purposive mind)”고 여겨 시가 자신의 신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자신 역시 상대방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간주했다.⁵³⁾ 다시 말해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였고, 이는 서거정과 양여곡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아울러 이처럼 시를 통한 사신들의 교류는 유교 국가로서의 文運이 흥성했고 유교 교육을 받은 계층이 존재하는 조선과 대월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것이었

52) 이러한 문학적 요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풍기, 앞의 논문, 165~167쪽 참고.

53) Liam C. Kelly, *Beyond the Bronze Pillars: Envoy Poetry and the Sino-Vietnamese Relationship*,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pp. 37~38.

지 여타 외국의 사신들은 필담 정도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상대방과 시문을 주고받는 등 고도의 문학행위는 불가능했다.⁵⁴⁾

서거정과 양여곡이 주고받은 세 편의 시 「차조선국서재상시운」, 「차안남사신양곡시운」, 「관성자증양봉사」 역시 이러한 동아시아 맥락 속에서 탄생했다. 같은 유교 문화와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던 조선과 대월 지식인들이 공유한 연대의식이 두 사람 사이의 동질감을 형성했다. 이러한 동질감을 기반으로 명에서 교류했던 1420년생 동갑내기인 두 사신은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이후 다시 만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서로 이별의 아쉬움이 여실히 드러나는 작품들을 창작했다. 그러나 사신으로서의 임무는 끝나 서로 이별하였을지라도 이들의 교류는 조선과 대월에 각각 전해졌을 것이다. 비록 현전하지는 않지만 양여곡의 시가 『사가지집』에 실려 있는 것처럼 서거정의 시 역시 베트남 문사들에게 읽혔을 가능성이 높다. 서거정과 양여곡의 교류는 한월 양국 문사들의 지속적인 교류가 시작되었음을 본격적으로 알리며 이후 시대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초석이 되었다.

5. 맺음말

1460년 서거정과 양여곡의 만남은 15~18세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한월 사신 간 창화시 교류의 시작점이었다. 그들의 이러한 교류는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고 지식인들이 한문이라는 공용어를 사용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서거정과 양여곡이 몇 번이나 만나 총 몇 편의 시를 주고받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서거정의 『사가지집』에 양여곡이 쓴 한 편의 시 「차조선국서재상시운」, 서거정이 쓴 두 편의 시 「차안남사신양곡시운」, 「관성자증양봉사」가 전한다. 그동안 서거정과 양여곡의 만남은 한월 사신 간 창화시 교

54) 최병욱, 앞의 논문, 30쪽.

류에 대한 연구 흐름 속에서 단순히 사료에서 발견되는 최초의 사례라고만 소개될 뿐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둘의 만남은 이후 300년 넘게 이어질 양국 사신의 창화시 교류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서거정과 양여곡은 양자 공히 자신들의 고국에서 이름난 문사들이었다. 서거정의 외가는 여말선초의 대문장가 권근의 집안이었고 이 때문인지 이 집안 출신의 인물들 중에서는 ‘문’으로 흥한 사람들이 많았다. 서거정 역시 과거에 합격한 이후 당대 석학들이 모여 있던 집현전에 근무하였고 세조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는 증양의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다. 무엇보다 그는 과거 시험의 주관자인 대제학에 2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있으면서 조선의 문병을 장악했다. 아울러 세조의 사명을 짓거나 국가의 각종 편찬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하여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한 글이 무수히 많았고 개인적으로도 왕성한 저술활동을 했다. 양여곡 역시 과거에 3등으로 합격한 이후 당시 베트남 조정의 문한기관이던 한림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고대부터 레 왕조까지 나온 율시나 제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그는 특히 시 창작에 재능이 있어 레 성종의 칙유에 그의 시가 언급되거나 이후 18세기 여귀돈이 지은 『전월시록』에 양여곡의 시 여섯 수가 실려 현재까지 전해진다.

고국에서 문사로 명성이 높았던 두 사람은 1459~1460년 명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이 시기 명에 사신으로 오기 전 한 차례씩 명 사행에 포함되었던 경력이 있었다. 양여곡은 개국공신인 원로 무인들과 흥하 델타 출신 문신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 치열했던 레 왕조 초기의 정치 상황 속에서 레 인종을 죽이고 새로 즉위한 여의민의 책봉을 받기 위해 명으로 파견되었다. 그의 사행은 델타 출신 문신들이 적극 등용되고 1442년의 과거에 합격한 지식인들이 명으로의 사행에 적극 나섰던 당시 조정의 분위기와 연관된다. 양여곡이 속한 델타 출신 문신 집단은 15세기 초 명이 베트남을 지배할 당시 이식했던 신유학에 기반한 교육을 받은 세대로, 이들은 1440~1460년대 명으로의 사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서거정은 조선이 여진족 추장 낭발아한을 죽인 문제를 둘러싸고 명과 침예한 갈등을 하고 있던 와중에

조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한 사은부사로서 명에 파견되었다. 그는 세조가 신뢰하는 신하이자 조정의 유력한 관료 중 한 명이었고 무엇보다 문장에 재능이 뛰어나 그 명성이 높았다는 점, 명과의 외교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조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였다. 양자는 1460년 8월에 명 조정에 방물을 바쳤는데 둘의 만남 역시 이 시기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명에서 만난 서거정과 양여곡 사이에 오고간 시 중에 남아 있는 것은 「차조선국서재상시운」, 「차안남사신양곡시운」, 「관성자증양봉사」 세 편이다. 앞의 두 시는 서거정과 양여곡이 각자 사신의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상황을 슬퍼하며 노래한 것으로, 전형적인 오언율시의 형식을 갖추었다. 이 두 편의 시에는 함께 교류하였지만 이내 이별해야만 하는 슬픔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한편 서로에 대한, 나아가 조선과 대월 사이의 동질감이 내포되어 있다. 1420년생 동갑내기로 명에서 만난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하였고 집현전, 한림원 등 문한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당대 조선과 대월을 대표하는 문사로 성장하여 명으로 가는 사행단에 부사로서 합류했다. 이후 양국의 지식인은 명에서 만나서 시라는 수단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과 자신의 마음을 공유했다. 이들은 사신의 임무를 마치고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자 다시 만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 아쉬움과 슬픔을 노래하며 「차조선국서재상시운」과 「차안남사신양곡시운」이 탄생했다. 「관성자증양봉사」는 서거정이 양여곡에게 붓을 주며 지은 시로, 창작을 한 서거정과 감상을 하는 양여곡으로 대표되는 당시 조선과 대월의 문사들의 수준 높은 문학적 소양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양자 사이 이러한 고도의 문학행위가 오고 간 것은 이들이 조선과 대월의 사신이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서거정과 양여곡의 교류는 당시 조선과 대월의 내부 상황, 그리고 명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시기 양자가 명에서 만나 공유한 동질감은 이후 각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조선과 대월에 역시 전해졌을 것이고 이들의 만남은 이후 약 3세기 동안 이어진 양국 사신의 교류를 만들어낸 밑거름이 되었다. 조선 사신 서거정과 대월 사신 양여곡의 교류는 단순히 많은

공통점을 갖는 두 인물의 만남을 넘어서 15세기 초 대월-명-조선을 잇는 국제관계가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혹은 같은 유교 문화와 한자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세 국가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교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전통 시대에 직접적인 외교 관계가 없었던 한국과 베트남을 동아시아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시각이 그 시기 양국이 갖던 역사적 동질감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다.

■ 참고문헌

- 『明史』, 臺灣中央研究院 漢籍電子文獻.
- 『明英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徐居正, 「管成子贈梁奉使」, 『四佳詩集』 第七券, 한국고전종합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徐居正, 「次安南使梁鵠詩韻」, 『四佳詩集』 第七券, 한국고전종합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成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世祖實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梁如鵠, 「次朝鮮國徐宰相詩韻」, 『四佳詩集』 第七券, 한국고전종합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全越詩錄』, Viện Nghiên Cứu Hán Nôm A, 393, Hanoi.
- 『精選諸家律詩』, Viện Nghiên Cứu Hán Nôm A, 574, Hanoi.
- 陳荊和 編校, 『大越史記全書』,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85.
- 『欽定越史通鑑綱目』, 臺灣國立中央圖書館, 1969.
-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2013.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월 사신 창화시문』, 글로벌콘텐츠, 2013.
- 조흥국,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사』, 소나무, 2009.
- Đỗ Văn Ninh, *Từ Điển Chữ Quan Việt Nam* (베트남관직사전), Nhà Xuất Bản Thông Tấn, 2018.
- Kelly, Liam C., *Beyond the Bronze Pillars: Envoy Poetry and the Sino-Vietnamese Relationship*,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 Lại Nguyễn Ân, *Từ Điển Văn Học Việt Nam - từ nguồn gốc đến hết thế kỷ XIX* (베트남문학사전 - 기원
에서부터 19세기가 끝날 때까지), Nhà Xuất Bản Văn Học, 2018.
- Whitmore, John K., *Vietnam, Hồ Quý Ly, and the Ming (1371-1421)*, Yale Southeast Asia Studies, 1985.
- 김성우, 「15세기 중·후반 勳舊官僚 徐居正의 관직생활과 그에 대한 평가」, 『대구사학』 83, 대구사학회, 2006.
- 김풍기, 「『북정록』에 나타난 서거정의 사행 경험과 훈구문학의 고고학적 탐구」, 『국학연구총론』 24, 태민국학연구원, 2019.
- 노요한, 「세조-성종연간 서거정의 저술과 편찬 활동」, 『진단학보』 136, 진단학회, 2021.
- 藤原利一郎, 「黎朝前期の明との関係」, 『ベトナム中国関係史』(山本達郎 編), 山川出版社, 1975.
- 박희병, 「조선 후기 지식인과 베트남」, 『한국문화』 4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 신병주, 「서거정의 행적과 역사서 편찬 -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을 중심으로」, 『승실사학』 50, 승실사학회, 2023.
- 윤대영, 「베트남 레(Lê) 왕조(黎朝)의 知的 動向과 性格 - 實學의 變遷 및 레 꾸이 돈(Lê Quý Đôn, 黎貴惇, 1726~1784)의 학문관과 관련하여」, 『동양사학연구』 168, 동양사학회, 2024.
- 이규철, 「세조대 모려위 정벌의 의미와 대명인식」, 『한국사연구』 158, 한국사연구회, 2012.
- 이승수, 「연행로의 地理와 心跡 2, 通州~玉河館」, 『민족문화』 52, 한국고전번역원, 2018.

- 찐각마인, 「중세시기 한월사신들 간의 창화시 조사와 번역·연구 검토」, 『한국과 베트남 사신, 북경에서 만나다』(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엮음), 소명출판, 2013.
- 최귀목, 「한월 창화시 연구의 경과와 방향 점검」, 『한국과 베트남 사신, 북경에서 만나다』(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엮음), 소명출판, 2013.
- _____, 「越南의 중국 使行文獻 자료 개관 및 연구 동향 점검」, 『대동한문학』 34, 2011.
- 최병욱, 「한·월 교류사에서 보이는 문사의 전통」, 『한국과 베트남 사신, 북경에서 만나다』(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엮음), 소명출판, 2013.
- 한성주, 「조선 세조대 ‘女眞 和解事’에 대한 연구 - 申叔舟의 파견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 동북아역사재단, 2012.
- _____, 「조선 세조대 毛隣衛 征伐과 여진인의 從軍에 대하여」, 『강원사학』 22·23, 강원사학회, 2008.
- Kelley, Liam C., “Confucianism in Vietnam: A State of the Field Essay”,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1, no. 1-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 Whitmore, John K., “Northern Relations for Đại Việt: China Policy in the Age of Lê Thánh Tông(r.1460-1497)”, *China’s Encounters on the South and Southwest* (ed. James A. Anderson and John K. Whitmore), Brill, 2015.
- _____, “The Development of Le Government in Fifteenth Century Vietnam”,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1968.

The Exchange Between Seo Geojeong of Joseon and Lương Như Hộc of Đại Việt in Ming China, 1460

Byun, Kyuduck*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origins of active exchanges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envoys from the 15th to 18th centuries,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Seo Geojeong of Joseon and Lương Như Hộc of Đại Việt in Ming China, 1460. By doing so, it explores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in the 15th century, connecting Joseon, Ming China, and Đại Việt.

Seo and Hộc were prominent literati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Seo worked as a civil official in academic institutions, and notably served as *Daejehak* (大提學) for 22 years, an esteemed position considered to represent the best scholar in Joseon. He led the academic tradition of the early Joseon, contributing to numerous official publications as well as his private writings. Hộc, similarly, worked in the *Viện Hàn Lâm* (翰林院) and *Bộ Lễ* (禮部), and was actively involved in official publications, with a particular talent for poetry.

Both Seo and Hộc met in Ming China while serving as envoys from Joseon and Đại Việt. Hộc was in Ming to secure investiture for his king, Lê Nghi Dân (黎宜民), while Seo was there to clarify Joseon's stance on the Jurchen issue. It is believed that their meeting took place in mid-August 1460.

Three poems they exchanged during their meeting reflect their mutual respect, regret over parting after their missions, and their high level of literary knowledge. This exchange of poetry not only highlights the important role

* PhD Candidate, Comparative Asian Studies Programm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literary activities played among East Asian scholars at the time, but also sheds light on the historical connections between Joseon and Đại Việt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East Asia.

Key words : Seo Geojeong, Lương Như Hộc, Joseon envoy, Đại Việt envoy, Exchanges between Korea and Vietnam, Poetry exchange